

北 “군사보장 뒤 열차시험운행 확정”

남북철도 연결 실무접촉 의견 접근...5월초 군사접촉 기대

남북은 27~28일 개성에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제13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군사보장 조치가 취해진 뒤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열차 시험운행의 기술적 사항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고 시험운행의 방법과 절차, 행사 참석규모, 안전점검 문제, 공동기념행사 진행내용 등에 대해 대체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된 뒤 추가접촉을 통해 세부 사항을 협의해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5월 초에는 군사 실무접촉을 통해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5월17일 열차시험운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험운행 당일에는 경의선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권호중 내각 책임참사, 동해선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용삼 철도상이 각각 참석해 남북

문산역과 북측 금강산역에서 공동기념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기념식에는 시민들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젤기관차 1량과 객차 5량씩으로 구성된 시험 운행 열차에는 남측과 북측에서 100명씩 타게 된다.

운행방식은 경의선의 경우 남측 문산~도라산역을 거쳐 북측 관문역~개성역으로 가고 동해선은 북측 금강산역~감호역에 이어 남측 제진역까지 운행하는 등 지난 해 5월 합의했던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보장 조치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주장은 북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에 군사보장 조치를 한 뒤 추가 협의하자고 제안한 배경은 예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측도 군사보장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

면 군사보장 조치 여부가 불확실해 합의의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북측 입장은 군사보장에 대한 확실한 기대 속에 시험운행 세부계획에 합의했던 지난 해 5월과는 다른 상황으로 시험운행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경험위 직후 북측 내부에서 시험운행을 둘러싼 부정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을 엿보는 관측이다. 북측 군부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있을 법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북측의 신중한 접근에 따른 결과로 보는 해석이 우세한 편이다.

실제 북측은 이번에 군사보장조치를 마련된 뒤 세부사항을 합의하자고 제의하면서도 시험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개통식과 정기운행에 앞서 또 군사보장카드를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처럼 ‘높은 수준’의 보장보다는 시험운행에 국한한 1회성 보장에 응할 공산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위안부 할머니 증언...美 하버드대 울리다

“아베 총리는 내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28일(현지시간) 미국 동부의 명문 하버드대학에서 위안부 증언에 나선 이용수 할머니는 증언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랐던 15살 때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 잡혀가 위안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비참했던 위안부 생활을 증언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증언이 이어지면서 행사장인 하버드대학 존 F 케네디 스킵 내 펠퍼빌딩 5층 벨 홀에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 여기저기서 안타까움의 한숨 소리가 세어 나왔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참석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자신이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받은 전기고문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역사의 산증인이라면서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도 “일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이 나를 위안부라고 불렀지만 내 이름은 위안부가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용수”라면서 일본총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공식 사죄하고 배상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의 증언이 끝난 뒤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나머지 아시아 국가간의 문제이며 인권과 도덕의 문제라는 사회설명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실했다.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9일(한국시간) 하버드대학 존 F 케네디 스킵 펠퍼 빌딩에서 위안부 참상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이 할머니에게 찾아가 위로와 이해의 뜻을 표시했으며 즉석에서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스톤=연합뉴스

“왜 미국에 위안부 문제 사죄하나”

日 언론들 아베 비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데 대해 “사죄 대상이 미국이냐” “위안

부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9일자 ‘사죄 대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제목의 사설에서 “총리가 ‘인간으로서,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동정하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사과 방법은 정말로 기묘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총리가 사죄해야 마땅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총리는 종전에 고노담화에 반발했었다. 피해자를 배려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찬, 주변국 ‘연쇄 방문’ 행보 눈길

내달 중순 방미 이어 방러 4개국 정상회담 논의할 듯

이해찬 전 총리가 5월 중순 미국을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난 3월초 북한과 중국을 방문했던 이 전 총리는 특히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 등을 위해 최근 비공개로 일정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고, 5월 방미에 이어 러시아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한반도 주변국 ‘연쇄 방문’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다음달 10일 열린우리

당 동북아평화위 위원장 자격으로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 전 총리는 LA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6·10 항쟁 20주년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 뒤 워싱턴에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남북관계 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 전반에 걸쳐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해럴드 백악관 국

가안보보좌관 등과의 면담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가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에 신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 고위관계자들과의 접촉에서 4개국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의 활발한 외교 행보를 놓고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내지 4개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정치 작업 성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범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 전 총리의 대선 행보와 연관짓는 분석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F-22 랩터 일본에 안판다”

美 국방부 당국자 밝혀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일본과 이스라엘에 최첨단 전투기 F-22 ‘랩터’를 판매할 것이라 관측을 부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 담당 기관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청의 제프리 콜러 공군 중장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F-22를 수출하려면 설계와 제작, 실험 등을 모두 다시 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럴 경우 여러 해가 걸리고 가격도 극도로 비싸져 수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러 중장은 특히 “이 전투기는 미래 우리에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설명 의뢰의 수출 승인이 있더라도 F-22를 외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및 군수업체들에 정통한 군사분석가 로렌 톰슨은 “전투기 공유의 전략적 필요성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콜러 중장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지난 28일 바그다드 남쪽 80km 카르발라 시아파 회교사원 근처에서 저녁 기도차 신도들이 모여드는 와중에 길에 주차된 한 자동차에서 폭탄테러가 발생, 58명이 죽고 160여명이 부상했다. 진화작업을 펴는 소방관들. /AP=연합뉴스

이라크 시아파 성지 폭탄테러...58명 사망

이라크 시아파 성지 가운데 하나인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에서 28일 오후 7시(현지시간) 저녁 기도시간에 맞춰 차량을 이용한 폭탄테러가 벌어져 58명이 숨지고 160여명이 부상했다.

폭탄 테러로 대량 인명 피해가 나자 성난 카르발라 시민들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돌을 던졌고 카르발라 주지사의 집을 급습하기도 했다.

현지 보안 당국에 따르면 카르발라의 성지 주변에 처진 시멘트 벽에서 15m쯤 떨어진 곳에 주차됐던 폭발물을 가득 실은 차 1대가 폭발하면서 저녁 기도를 위해 모여들던

시민들이 희생됐다.

앞서 카르발라에서는 이날 14일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47명이 숨지고 224명이 다치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었다. 카르발라는 이날 폭탄테러가 일어난 지 1시간 뒤인 오후 8시(현지시간) 12시간 동안 통행금지가 내려졌다.

이날 하루 이라크 전역에선 최소 11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알-자지라 방송은 27~28일 이틀에 걸쳐 미군이 바그다드와 안바르 주에서 저항세력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미군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루마이=연합뉴스

국비무료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책관리사·공인중개사

재직자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주책관리사 주말반(토, 일) 교육기간: 5/5~7/1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 (토 14:00~18:00, 일 10:00~17:00)
공인중개사(월~토) 교육기간: 5/1~6/30	민법, 법령, 세법, 공시법, 부동산학개론, 공법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주책관리사(월~토) 교육기간: 6/4~7/31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사무자동화(월~금) 개강: 5/13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교재무료제공

기 타 사 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수료후 100% ~ 80%환급
- 집 수: 수강절차: 훈련신청 ▶ 훈련수강신청서 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 공인중개사 / 주책관리사 저자 직강

- 전남어고수분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 예술의 거리 입구 동인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 문화전당역(구 도청) 지원07, 지원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동암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전남어고 권-편 김재규 경찰학원 3층 ★ http://www.hdedu.co.kr

=행자부는 2011년까지 공무원 51,223명을 증원 할 계획이다=

7.9 급 공무원 완전 대비

기술직렬 ... 행정직렬 ... 공안직렬

시험 ■ 서울 지방직: 7월 8일 시행 1723명 ■ 전남: 6월 23일 161명
■ 전북 지방직: 제2회 9급 행정, 사회복지·사서: 9월 8일 131명 공채
안내 ※전남지방 7·9급 행정직 하반기 시험 시행 예정

※ 하반기 각 시·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응이 ※

개강: 5월 1일 주·야(휴일)반 모집 ★장기이론반: 주간 2개월 야간 3개월 완성
★핵심이론반: 문제풀이반 4주완성반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충안초교 후문) ☎ 222-4560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대비반 개강 5월 1일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 4주준비 맞춤이론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myoung.co.kr
김영(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초대졸 커리어매니저 0명 모집

(株) 행복출발 호남지역총괄 (062) 527-3388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이) 마들닷컴 >90 을 치세요